

옛날에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

옛날에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. 날마다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. 그러나 고양이가 “야옹”하고 저쪽에서 나타나면, 쥐는 “찍찍”하고 울면서 얼른 구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. 고양이는 화가 났습니다. ‘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?’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“내가 개소리를 내면, 쥐는 내가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하겠지.” 그래서 고양이는 개처럼 “멍멍”하고 짖었습니다. 그러자 쥐는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습니다. 바로 이 때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서 “요즘에는 외국어 하나쯤 알아 놀는 것이 좋아!”하고 말했습니다.

[中文譯文]

從前有隻貓和老鼠住在一間房子裏

從前有隻貓和老鼠住在一間房子裏。每天貓到處跑著抓老鼠。可是貓“喵”的一聲從一邊出現時，老鼠就“吱吱”地咻一下躲進洞裏。貓生氣了！“怎麼才能把牠抓來吃呢？”想了老半天，終於想出了一個好主意。“我學狗叫，老鼠就會以為我走遠了。”所以貓就像狗一樣“汪汪”地叫起來。老鼠接著小心翼翼地出來了。正當此時，貓抓住老鼠說：“最近會一門外語，的確不錯啊！”